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기여감

The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and Contribution to the Family Life of Urban House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貞珢

강사 張炳玉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eong Woo, Lee

Lecturer : Byung Ok, Chang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the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and contribution to the family life of urban housewives and to find ou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m.

The samples were selected from 522 housewives with children more than one living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

1) In the housewives the degree of education, of resourcefulness recognition and of communication were high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was relatively morphogenesis.

2) Influential variables on contribution to the family were the level of education, status of employment and as the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was morphogenesis.

3) The relatives contribut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pattern of contribution to the family was the highest among other variables ;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 서 론

오늘날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교육 수준 향상 및 사회참여 증대로 인한 변화는 가족의식 및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주부의 관리행동에 변화를 유도한다. 가정관리행동은 일반적으로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관리자가 가족원의 자원을 효율적절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은 주부의 의도적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기도 하며 개인의 가치관 및 능력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부들은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가정생활 기여정도에 따라서 생활 만족 및 행복감이 증대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취업소득으로 인해 가정내 권력배분과 자원할당에 기여정도가 높은 반면에 시간제한으로 인한 주부 자신 및 부부관계, 가사노동, 자녀양육등에서 만족할만한 역할 관리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비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의미함과 단순한 생활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주부 자신의 가정내 역할수행을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심리적 보상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의 취업여부 및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관리행동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주부의 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 혹은 안정지향적인가에 따라 주부의 가정생활에의 기여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부가 주변의 환경변화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또는 수용적인가에 따라 관리행동유형이 달라지게 되며, 주부의 관리자적 능력 및 행동과 소유하고 있는 자원량에 따라서 가정생활의 정서적·경제적 측면과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어떠한가 관리행동유형에 따라 가정생활에서 어느 정도 기여감을 느낄 수 있는지,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만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지출과 관련한 경제적 기여도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기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실정이다(김혜연 1994; 김시월 199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인 변인을 분석하고 주부들의 관리행동유형과 기여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정관리행동의 질적 향상과 주부의 심리적 충족감을 통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행동유형

가족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는 역동성을 나타낸다. 가족의 역동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융통성 및 개방적인 면과 가족체계를 유지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보수성과 폐쇄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Broderick & Smith, 1979). 따라서 가정은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을 위해 가족이 어떠한 가치와 목표 및 기대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에서 유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들어 체계적 접근하에서 관리행동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Buckley(1967)는 체계이론에 입각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 또는 수용적인가에 따라 변화지향형과 안정지향형으로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분류하였다.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과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정관리행동의 개념이 보다 체계화되고 명료화 될 수 있다.

Beard 와 Firebaugh(1978)는 경제의 유지,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화, 현재 체계구조에의 몰입정도, 새 요구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라 계획행동의 유형을 안정지향적 계획행동과 변화지향적 계획행동으로 분류한 바, 안정지향적 계획행동은 목표지향적 계획수

립을 하며 구조적 변화를 회피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변화지향형의 계획유형은 변화를 수용하고 목표는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따라 수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Deacon과 Firebaugh (1981)는 체계론적 입장에서 안정지향적(morphostatic system), 변화지향적(morphogenic system), 무작위적인 체계(random system)로 분류하였으며, Buchler와 Hogan(1986)은 자원중심적(resource-centered style), 목표중심적(goal-centered style), 제약적 유형(constrained-style)으로 구분하였다.

이정우와 오경희(1988)는 안정지향형이란 가족환경의 변화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가정관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또는 가정영역을 유지·고수하려는 행동유형으로 보았고, 변화지향형은 변화를 수용하는 행동 형태로 가족환경에 따라 목표를 수정·보완하는 융통성 있고 역동적인 행동유형을 의미하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을 가정관리자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행한 행동형태로서 주부의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근대적일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최동숙(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이 안정지향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창의성, 계획의 융통성인 면에서는 변화지향적이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 자원의 활용면에서는 다소 안정지향적이고 자원인식과 가족요구, 통제 및 점검, 표준과 일의 순서면에서는 안정지향적인 관리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관리체계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관리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유형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정관리 활동의 핵심요소로서 나타난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 의거하여 가정관리행동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관리행동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유형화하고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관리행동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정생활에의 기여감

주부의 가계소득기여 및 가정생활 기여감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여성교육의 확대와 출산율의 저하, 가계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등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외에 주부들의 가사노동 및 부부·자녀와의 관계등에서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기여감과 심리적 보상을 유추해 나가기로 한다.

취업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여감을 살펴본 바 취업 주부들의 경제적 기여감은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여러 연구(Mahony, 1961; 조혜정, 1981; 유희정, 1989; 김시월, 1993)등에서 취업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긍정적일때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주부의 가정생활내의 경제적 기여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감은 자아실현과 성취에 가치를 두는 여성의 의식구조 변화가 동반될때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선영, 1985).

대체로 저소득층의 경우 주부의 취업여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또는 남편 혹은 주변 사람의 태도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Hafstrom & Schram, 1983).

Hanson(1991)은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구분하여 취업소득에 대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조사한바, 비취업주부 가정에 비해 취업주부 가정이 경제적 기여가 더 많았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기여율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Fitzsimmons와 Williams(1974)는 가계소득에는 가정밖의 생산활동에서의 화폐소득, 가계내 생산활동으로 오는 실질소득, 소비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심리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심리소득을 통하여 얻어지는 만족이 가계의 복지실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화폐소득은 직업과 관련되며, 실질소득은 가족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활동인 가계생산의 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의 인적자원의 사용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주부에게 기대되는 주부역할에 전념하

므로서 심리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반면, 취업주부는 화폐소득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주부역할 정체감에 부응하지 못하는데서 죄책감과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Pleck, 1985; Foster, 1988).

이와같이 주부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혜택과 부정적인 희생이 공존하게 되는데, 주부는 취업에 의해 수반되는 혜택이 더 크다고 인식될 때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계속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주부가 취업하게 되면 가정생활과 가족에 기여할 시간이 적어지는 반면, 보다 다양한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Moore & Sawhill, 1978). 이러한 주부의 취업소득은 주부 자신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물적자원으로 가족의 요구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으므로 취업주부의 갈등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임혜경, 1993).

한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부의 취업은 주부에게 가정밖의 생산활동과 가정내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역할 부담과 시간부족을 야기시킴으로서 가사노동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그 노동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이 수행되고,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행함으로써 가족원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제공하며 사회안정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차원의 가치가 있으며(조윤경, 1988),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가족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소득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문숙재, 1991). 그러나 가사노동은 반복적이고 신체적 요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주부 개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와 자아실현 및 가사노동의 기대수준 및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에 따라 기여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은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이 자신의 가정을 위한 일이며 가사노동을 통해서 가족성원의 건강과 가족들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보람을 느끼거나 긍정적으로 가치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김영란, 1989; 정지영,

1989). 이와같이 한 개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생각할때,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가사노동의 질을 좌우하며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최선미, 1992)

정서적 기여감은 주부 자신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성에 관한 기여정도로서 주부들은 가정생활중에서 자녀관계에 대한 관심과 만족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옥선화 외 4인, 1991; 손현숙, 1995) 정서적인 영역이 주부들의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earner(1994)는 주부 개인 및 가족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양육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관리적 기여감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연구는 거의 살펴볼 수 없으므로 가족간의 갈등 및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관리적 기여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리적 기여감은 원활한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역할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주부의 역할관리에 대한 기여정도를 의미한다.

Thompson과 Walker(1991)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혜경·노지영(1994)의 연구에서도 가정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이 부인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관리행동을 취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중심의 현대 가족에서는 부부간의 동료감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배우자간에 서로의 지위를 확인하며 래포형성으로 신뢰감을 증진시켜 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부관계를 강화시킨다. 이와같은 동료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서로에게 헌신하려는 노력과 친밀성을 유지하려는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① 연령

주부의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약간 안정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안나 외 3인, 1991). 김경숙(1993)에 의하면 취업주부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습관화된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eadows(1991)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별로 가정자원에 기여하는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숙재·김혜연(1995)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인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경제적 기여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취업소득은 점차 많아지는 경향이지만 가사 및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기여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 하였다.

② 학력

학력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살펴보면 이정우와 오경희(1992)는 주부의 학력에 따라 인적, 비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행동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관리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인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간의 애정을 관리하는데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융통성있는 표준과 새로운 자원의 활용으로 가족간의 애정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안나 외 3인(1991)과 조미환(1991)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금전관리행동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대졸이상인 주부가 고졸이하인 주부보다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임이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창의력이 우수하여 대안 모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가계소득이 높으므로 금전관리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원의 활용과 계획의 융통성을 변화지향적으로 하는 반면, 행동의 융통성은 오히려 안정지

향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Link(1973)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심리적 소득 및 보상이 크므로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③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살펴보면 이정우와 오경희(1988)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인적자원 관리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인 반면, 비인적자원 관리행동유형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안정지향적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 조미환(1991)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안정지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관리대상별로 보면, 금전관리행동은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보이며, 시간관리행동은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도 이정우와 오경희(1988) 및 조미환(1991)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안나 외 3인(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소득

이정우와 오경희(1988)의 연구에서는 가정내 소득은 경제적 자원으로써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이 많은 경우는 자원활용의 관리행동을 변화지향적으로 한다고 한 반면에 조미환(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연숙 외 3인(1991)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기춘과 민현선(1992)의 연구에서는 전일 취업주부의 취업소득 기여율은 가계소득의 38%로 나타났다. 또한 Hefferan(1982)도 취업주부의 소득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Lazer와 Michael(1980)은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비취업주부 가정보다 실질소득의 25% 정도 더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 Easterlin(1973)은 개인의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기여감과 행복감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물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개인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취업 여부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조미환(1991), 최동숙(1991), 이정우와 오경희(1992)는 취업주부일때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라고 하였으며, Beard(1975)는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금전관리행동면에서, 조영희(1986)는 시간관리면에서 더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안나 외 3인(1991)의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변인

① 자원적정인지도

자원인지도나 자원기여 평가도를 변인으로 한 실험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유추되는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정우와 박미금(199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편의주의적 가정관리행동,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가정관리행동,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적 자원지각도가 높을수록 생활개선형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동숙(1991)은 가정이 어떠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다는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관리행동유형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는, 자원적정인지도는 전체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영역별로 보면 취업주부의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때 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참여를 보다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Beard와 Firebaugh(1978) 또한 가정관리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일수록 좀더 많은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양희 외 5인(1992)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

는 자신의 취업으로 인한 자원인지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Schram 과 Hafstrom (1986)에 의하면 비취업주부의 재정자원 적정인지도가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상태를 향상시키는데 주부 자신이 인적자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의사소통도

이정우와 박미금(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의 가정관리행동, 생활개선형 가정관리행동, 절약형 가정관리행동,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정우와 오경희(1988)의 연구에서는 비취업주부의 가족간 의사소통정도와 가정관리행동유형은 대체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정도가 높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취한다고 한 반면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때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취한다고 하였다. 다시말해서 가족간에 의사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정보·지식및 감정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가정내 목표를 여러가지 상황이나 변화에 적절히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즉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도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③ 취업태도

주부의 취업에 대한 태도나 혹은 취업 동기에 따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이 다르므로 가정의 경제적 상태 및 주부의 취업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문숙재·김혜연,1995). 황현주(1994)는 주부의 취업동기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부부의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 중요하며 여성의 취업자체가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기 보다는 취업으로 인해 파생된 가정환경의 변화, 즉 자녀양육, 소득의 증가, 부부의 상호작용의 증감, 가사문제가 취업주부의 정신건강 및 가정생활 기여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숙(1993), 강성희(1989)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지가 있을때 가정생활의 경제적 기여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연숙 외 3인(1991)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이해와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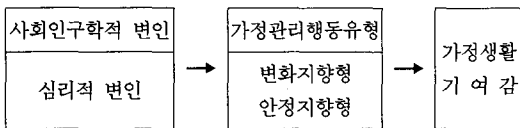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도시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변인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도시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과 가정관리행동유형이 가정생활 기여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기여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변인 및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3. 용어 정의

가정생활 기여감 :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부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기여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사노동 기여감은 주부가 가정내 가사노동에 관한 참여 및 관리에 대한 기여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기여감은 주부 자신 및 부모 자녀관계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에 관한 기여정도를 의미한다. 관리적 기여감은 주부의 가정관리 수행과 문제해결 및 역할관리에 대한 기여정도를 뜻하며, 경제적 기여감은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동료적 기여감은 부부관계의 질향상을 위한 주부의 동반자적 기여

정도를 의미한다.

4. 측정 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 척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학력·자녀수·소득·직업유무등 5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자원적정인 지도에 관한 척도는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연구를 기초로하여 물리적 환경·건강·시간·금전·대인관계·지식 및 기술·지역사회 공공 시설 자원영역에서 각각 1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64로 나타났다.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적정인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변인으로 의사소통도 척도는 김정숙(199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4로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취업태도에 관한 척도는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주부 자신의 태도의 척도로 나누어 Meadows(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11문항, 주부 자신의 취업태도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70, .68으로 나타났다. 5점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취업태도를 갖는것으로 간주한다.

2) 가정관리행동유형 척도

Beard와 Firebaugh(1978)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최동숙(1991), 김정숙(1993)의 연구를 참고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여 요인분석의 결과 6개의 하위영역(가족활동, 행동의 융통성, 자원의 활용, 규칙준수, 지역사회참여, 계획의 융통성)으로 구분되었다.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69로 나타났으며,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서 "항상 그렇게 한다"가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지향형의 관리 행동으로 간주한다.

3) 가정생활 기여감 척도

Meadows(1991)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각 요인을 하위영역으로 간주하였다. 5개의 하위영역(가사노동, 정서적, 관리적, 경제적, 동료적 기여감)으로 요인으로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17문항, 비취업주부인 경우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 자신들의 가정생활 기여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5. 자료 수집 및 처리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의 자녀 1명 이상을 둔 주부를 대상으로 1996년 5월 15일 부터 6월 15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10월 1일 부터

11월 9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571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기재와 신뢰도가 낮은 것은 제외하고 그 중 52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요인분석·Cronbach' α 계수·빈도분포·백분율·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PC+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30대 주부가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의 주부가 2/3 정도(63.2%)를 이루고 있다.

자녀수는 2명인 가정(57.1%)과 1명인 가정(26.4%)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배경 변인 | 집단 | | 배경 변인 | 집단 | |
|-------|-----------|------------|---------|------------|------------|
| | 구 분 | 빈 도 (%) | | 구 분 | 빈 도 (%) |
| 연 령 | 29세 이하 | 37 (7.1) | 자녀수 | 1 명 | 138 (26.4) |
| | 30 ~ 34세 | 120 (23.0) | | 2 명 | 298 (57.1) |
| | 35 ~ 39세 | 287 (35.8) | | 3명 이상 | 86 (16.5) |
| | 40 ~ 49세 | 139 (26.6) | | 계 | 522 (100) |
| | 50 ~ 59세 | 39 (7.5) | 소 득 | 100만원 미만 | 31 (5.9) |
| 계 | 522 (100) | 100~200만원 | | 160 (30.8) | |
| 학 령 | 중 졸 | 27 (5.0) | | 201~300만원 | 177 (33.9) |
| | 고 졸 | 166 (31.5) | | 301~400만원 | 77 (14.7) |
| | 전문대졸 | 55 (10.6) | | 401만원 이상 | 77 (14.7) |
| | 대 졸 | 216 (41.7) | 계 | 522 (100) | |
| | 대학원졸 | 58 (11.2) | 직 업 유 무 | 유 | 244 (46.7) |
| 계 | 522 (100) | 무 | | 278 (53.5) | |
| | | 계 | | 522 (100) | |

63.3%이며 또한 주부가 취업한 가정(46.7%)과 취업하지 않은 가정(53.3%)이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2)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 기여감의 일반적 특성

가정관리행동유형 및 가정생활에서의 기여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가정관리행동유형 · 가정생활 기여감의 일반적 특성

| 변 인 | | 평 균 (M) | 표준편차 (S.D) |
|---------------------------------|---------|---------|------------|
| 가 정 관 리 유 형 | 가족활동 | 3.65 | .71 |
| | 행동의 융통성 | 2.51 | .72 |
| | 자원의 활용 | 2.84 | .67 |
| | 규칙준수 | 2.79 | .83 |
| | 지역사회참여 | 2.86 | .76 |
| | 계획의 융통성 | 3.37 | .60 |
| | 계 | 3.02 | .31 |
| 가 정 생 활 기 여 감 | 가사노동기여감 | 3.78 | .95 |
| | 정서적 기여감 | 3.82 | .62 |
| | 관리적 기여감 | 3.12 | .65 |
| | 경제적 기여감 | 3.27 | 1.04 |
| | 동료적 기여감 | 2.56 | .88 |
| | 계 | 3.34 | .45 |

주부들의 전체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은 비교적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활동과 계획의 융통성 영역은 비교적 변화지향적이었으며 다른 영역은 안정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이 변화지향적이었다는 이정우와 오경희(1988), 김경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주부들의 전체적인 가정생활 기여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기여감, 가사노동 기여감, 관리적 기여감, 동료적 기여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기여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교육 및 양육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따른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도가 주부의 높은 기여감으로 나타났

우리라 사료된다. 경제적 기여감은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 기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소득의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하였던 이연숙 외 3인(1991), 문숙재 · 김혜연(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3>과 같다.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체적인 가정관리행동에서는 학력($\beta=.16$), 자원적정인지도($\beta=.18$), 의사소통도($\beta=.13$)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부의 학력이 높고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는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보다 가정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 및 각종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은 경우 그만큼 자원활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가정관리행동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조영희(1985), 최동숙(1991), 두경자(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의사소통정도가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낸다는 김경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낸다는 이정우와 오경희(199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활동 영역에서는 연령($\beta=-.20$)과 의사소통도($\beta=.36$)가 분산의 17%를, 지역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자녀수($\beta=.12$), 취업여부($\beta=.17$), 자원적정인지도($\beta=.22$)가 분산의 13%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 자원의 활용 영역에서는 자원적정인지도($\beta=.22$), 의사소통도($\beta=.14$), 주부의 취업태도($\beta=.16$)가 분산의 10%를 설명하고 있다. 규칙준수 영역에서는 소득($\beta=.19$), 자원적정인지도($\beta=-.15$), 의사소통도($\beta=-.21$)가 분산의 11%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획의 융통성 영역은 소득($\beta=.$

〈표 3〉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가족 활동 | | 행동의 융통성 | | 자원의 활용 | | 규칙 준수 | | 지역사회 참여 | | 계획의 융통성 | | 가정관리 행동(전체)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연령 | -.02 | -.20** | | | | | | | | | | | | | | |
| 학력 | | | | | | | | | -.04 | -.11 | .03 | .09 | .03 | .14 | .03 | .16*** |
| 자녀 수 | | | | | | | | | | | .13 | .12** | -.10 | -.14 | | |
| 소득 | | | .01 | .14** | | | | | .01 | .19** | | | .01 | .18** | | |
| 직업유무 | | | | | | | | | | | .25 | .17** | | | | |
| 자원적정인지도 | | | | | .26 | .22** | | | -.22 | -.15* | .30 | .22** | | | .10 | .18** |
| 의사소통도 | .35 | .36*** | | | .13 | .14* | | | -.24 | -.21*** | .13 | .13 | | | .06 | .13 |
| 취업태도: 남편 | | | | | | | | | | | | | | | | |
| 주부 | | | .27 | .19** | .19 | .16** | | | | | | | | | | |
| 상수 | 3.22 | | 0.97 | | 0.92 | | 4.70 | | 0.91 | | 2.56 | | 2.15 | | | |
| R ² | .17 | | .06 | | .10 | | .11 | | .13 | | .09 | | .11 | | | |
| F값 | 44.58*** | | 9.27** | | 16.30** | | 13.62*** | | 15.86*** | | 16.08*** | | 18.69*** | | | |

* p < .05 ** p < .01 *** p < .001

18), 행동의 융통성 영역은 소득($\beta=.14$)과 주부의 취업태도($\beta=.19$)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부들의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와 자원의 활용면에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하고 있으며, 또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활동 영역을 변화지향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지역사회참여 영역을 변화지향적으로 하였고,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규칙준수, 계획의 융통성, 행동의 융통성 영역이 비교적 변화지향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을수록 대체로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낸다고 한 이정우와 오경희(199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 행동의 융통성이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취한다는 김경숙(1993)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가족의 목표를 상황에 따라 변경시키는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취하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가정관리에 사용가능한 자원의 활용이 용이하므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및 가정관리행동유형

도시주부의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변인 및 가정관리행동유형이 가정생활 기여감에 미치는 변인은 〈표 4〉와 같다.

전체적인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취업여부($\beta=.23$), 주부의 학력($\beta=.16$)으로만 나타났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의 융통성($\beta= -.15$), 규칙준수($\beta= -.14$), 지역사회참여($\beta=.21$)로 이들이 총 분산의 18%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학력이 높고, 취업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일때 가정생활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에서는 행동의 융통성과 규칙준수 영역이 안정지향적일때 가정생활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지역사회참여 영역이 변화지향적일때 가정생활 기여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재정복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임정(1988), 김연정과 김순미(1991)연구와 유사하였다.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정생활 기여감이 낮은 것은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직업 및 가정내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심리적 변인 및 가정관리행동유형이 가정생활 기여감에 미치는 영향

| 변인 | 가사노동 기여감 | | 정서적 기여감 | | 관리적 기여감 | | 경제적 기여감 | | 동료적 기여감 | | 가정생활 기여감(전체)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 연령 | | | | | | | | | | | | | |
| 학력 | .07 | .15** | | | | | | | | | .03 | .16*** | |
| 자녀수 | | | | | | | | | | | | | |
| 소득 | -.08 | -.12* | | | | | | -.01 | -.18* | | | | |
| 직업유무 | .60 | .34*** | | | .14 | .11** | | | | | .25 | .23*** | |
| 자원적정인지도 | | | .31 | .23*** | | | .31 | -.16* | | | | | |
| 의사소통도 | | | .27 | .27*** | | | | | .16 | .13* | | | |
| 취업태도 : 남편 주부 | -.18 | -.10* | | | | | .62 | .30*** | .21 | .13** | | | |
| 가행 정동 관유 리형 | 가족 활동 | | .14 | .13** | -.10 | -.11* | | | | | | | |
| | 행동의 융통성 | -.20 | -.15** | -.15 | -.14** | | | | | | -.11 | -.15** | |
| | 자원의 활용 | -.13 | -.11* | -.11 | -.10 | | | -.26 | -.16* | .22 | .17** | | |
| | 규칙 준수 | -.12 | -.11* | | | | | -.17 | -.13* | | | -.09 | -.14** |
| | 지역사회참여 계획의 융통성 | | | .14 | .14** | .15 | .16*** | -.34 | -.25** | .32 | .28*** | .14 | .21*** |
| 상수 | 3.93 | | 2.07 | | 2.97 | | 2.80 | | .10 | | 3.03 | | |
| R ² | .16 | | .23 | | .04 | | .17 | | .19 | | .18 | | |
| F값 | 14.49*** | | 25.88*** | | 9.33** | | 14.24** | | 25.53*** | | 18.21*** | | |

* p < .05 ** p < .01 *** p < .001

역할 수행에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또 역할과중으로 인하여 만족할만한 관리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심리적인 변인은 전체적인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하위영역별 기여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기여감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학력($\beta=.15$), 소득($\beta=-.12$), 주부의 취업여부($\beta=.34$), 주부의 취업태도($\beta=-.1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의 융통성($\beta=-.15$), 자원의 활용($\beta=-.11$)으로서 분산의 16%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학력이 높고 비취업주부일때 가사노동 기여감은 높게 나타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특히 주부의 취업태도가 소극적일때 가사노동 기여감은

높게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의 융통성과 자원의 활용영역이 안정지향적일때, 가사노동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주부가 가사노동 기여감이 높은 것은 비취업주부들이 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양이 많을뿐아니라 근래 가사노동의 대체용역 고용의 비용이 높기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게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서적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원적정인지도($\beta=.23$), 의사소통도($\beta=.27$)이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지역사회참여($\beta=.14$), 가족활동($\beta=.13$), 행동의 융통성($\beta=-.14$)으로서 이들이 총 분산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족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

만히 이루어지고 가족간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심리적인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참여와 가족활동영역에서 변화지향적일때 정서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관리적 기여감에는 주부의 취업여부($\beta=.11$)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지역사회참여($\beta=.16$), 가족활동($\beta=-.11$)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가 관리적 기여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참여 영역이 변화지향적이고 가족활동 영역을 안정지향적으로 하고 있을때 관리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주부는 취업주부보다 가정의 안정을 위한 갈등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족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과 타협을 모색하는 물리적·시간적 여유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적 기여감은 소득($\beta=-.18$), 자원적정인지도($\beta=-.16$), 남편의 취업태도($\beta=.30$)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자원의활용($\beta=-.16$), 규칙준수($\beta=-.13$), 지역사회참여($\beta=-.25$)로 이는 총 분산의 17%를 설명하고 있다. 즉 소득이 적고 자원적정인지도가 낮을때 경제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이 아내의 취업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할때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감이 높았다. 부연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감이 높았으며 특히 주부 자신 보다는 남편의 적극적인 취업태도가 경제적 기여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의 활용과 규칙준수 및 지역사회참여 영역에서 안정지향적일때 경제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적 기여감은 의사소통도($\beta=.13$), 남편의 취업태도($\beta=.13$)로서 심리적인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하위영역에서는 자원의 활용($\beta=.17$)과 지역사회참여($\beta=.28$)로 이는 총 분산의 19%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또 주부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및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때 동료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참여 영역이 변화지향적일때 동료적 기여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주부의 취업에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질때 부부간의 동료의식이 강하다는 이성해(198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4. 가정생활 기여감에 대한 각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기여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군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 3단계에서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주부의 취업여부($\beta=.30$) 학력($\beta=.16$), 소득($\beta=-.11$)등이 영향 변인이었으며, 다음단계에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주부의 취업여부($\beta=.25$), 학력($\beta=.15$), 의사소통도($\beta=.12$), 소득($\beta=-.13$)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부의 취업여부($\beta=.23$), 지역사회참여($\beta=.20$), 주부의 학력($\beta=.10$), 행동의 융통성($\beta=-.12$)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10%($P<.001$)로 나타났다. 이어서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3%($P<.001$)로 1단계에 비해 3%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가정관리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9%($P<.001$)로, 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한편 심리적 변인과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1단계 사회인구학적변인을, 2단계에서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추가하여 분석한바 주부의 취업여부($\beta=.25$), 학력($\beta=.10$), 지역사회참여($\beta=.21$), 규칙준수($\beta=-.11$), 행동의 융통성($\beta=-.13$)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력이 18%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영향력이 19%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심리적 변인의

〈표 5〉 가정생활 기여감에 대한 독립변인 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 변인 | | 1 단계 | | 2 단계 | | | | 3 단계 | |
|----------------------|-------------------|---------|--------|---------|--------|---------|--------|---------|--------|
| | | b | β | A | | B | | b | β |
| | | | | b | β | b | β | | |
| 연령 | | -.02 | -.01 | -.06 | -.01 | -.02 | -.03 | -.06 | -.10 |
| 학력 | | .04 | .16*** | .04 | .15** | .02 | .10* | .02 | .10* |
| 자녀수 | | .03 | .04 | .03 | .04 | .02 | .02 | .01 | .02 |
| 소득 | | -.04 | -.11* | -.05 | -.13* | -.03 | -.09 | -.03 | -.10 |
| 직업유무 | | .31 | .30*** | .26 | .25*** | .26 | .25*** | .24 | .23*** |
| 자원적정인지도 | | | | .04 | .04 | | | -.02 | -.02 |
| 의사소통도 | | | | .09 | .12 | | | .04 | .05 |
| 취업태도 : 남편 | | | | .01 | .01 | | | -.01 | -.01 |
| 주부 | | | | -.08 | .08 | | | -.05 | -.05 |
| 가행 정동 관유 리형 | 가족 활동 | | | | | .04 | .06 | .03 | .04 |
| | 행동의 융통성 | | | | | -.10 | -.13* | -.09 | -.12* |
| | 자원의 활용 | | | | | -.03 | -.04 | -.03 | -.04 |
| | 규칙 준수 | | | | | -.07 | -.11* | -.07 | -.11 |
| | 지역사회참여 계획의 융통성 | | | | | .15 | .21*** | .14 | .20*** |
| 상수 | | 2.75 | | 2.63 | | 2.64 | | 2.78 | |
| F값 | | 9.87*** | | 6.90*** | | 8.94*** | | 6.70*** | |
| R ² | | .10 | | .13 | | .18 | | .19 | |
| R ² 증가량 | | .10 | | .03 | | | | .06 | |

* p < .05 ** p < .01 *** p < .001

부가적 설명력은 1%(19% - 18%)였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의 부가적 설명력은 6%(19% - 13%)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유형의 부가적 설명력이 심리적 변인의 설명력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때 심리적 변인보다는 가정관리행동유형 변인이 가정생활에의 기여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세 변인이 가정생활 기여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고 그 관련 변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규명된 결과에 따른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주부의 전체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은 비교적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의 학력이 높고 자원적정인지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냈으며, 하위영역별로 볼때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활동영역에서 변화지향적이었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지역사회참여 영역에서 변화지향적이었다.

둘째, 주부의 가정생활 기여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부의 학력 및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비취업 주부의 경우 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별로 볼때 주로 지역사회참여 영역에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

을 취할때 가정생활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기여감은 비취업 주부이고 주부의 학력이 높으며, 취업에 대해 소극적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별로는 행동의 융통성과 자원의 활용 영역에서 안정지향적 일때 가사노동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기여감은 자원적정도와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또 지역사회참여와 가족활동영역에서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을 취할때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기여감은 저소득층에서 기여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의활용 및 규칙준수, 지역사회참여 영역을 안정지향적으로 하고 있을때 경제적 기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생활 기여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심리적 변인 및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바, 가정관리행동유형이 가정생활 기여감에 가장 영향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본 연구에서는 주부는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행동을 하며, 가족의 내적·외적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목표를 수정하는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취하고 있었으며, 가정생활 기여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도시 주부의 효율적인 가정생활 기여감을 위하여 주부들은 가족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 뿐만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따른 합리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선택하여야 하겠다. 특히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주부의 취업소득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사노동과 정서적인 면에서 시간제한과 이중역할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남편 및 가족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상품대체 그리고 가사노동 수행표준을 조정하는 변화지향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끝으로 제언을 하면, 산업화로 인하여 점점 복잡해 가는 사회와 가정의 빈번한 상호작용에 걸맞는 좀더 심층적인 가정관리행동 연구를 위하여 실증적인 행동유형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

의 가정생활 기여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취업,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대 박사학위논문.
- 3) 김시월(1993). 도시 빈곤지역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계소득 기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4) 김숙이(1987). 도시 주부의 경제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0(3), 285-305.
- 6)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8.
- 7) 김혜연(1995). 취업주부 비용과 가사노동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 8) 두경자(1993).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대처행동에 따른 가정관리행동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18-234.
- 9)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4.
- 10) 송혜림·이기영(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 13, 25-36.
- 11)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2) 손현숙(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공동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13) 신성자(1981).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14) 옥선화·이기춘·이기영·이순형·공인숙(1991).

-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 15) 이기춘·민현선(1992). 도시 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0(4), 107-120.
- 16) 이성해(1980). 기혼 여성의 취업과 부부갈등. 부산대학교 논문집, 19, 413-439.
- 17) 이안나·신효식·우희정(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 -153.
- 18)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직업 생활갈등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19) 이정우·박미금(1992).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 분류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223-240.
- 20) 이정우·오경희(1988). 도시주부의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 논문집(생활과학연구소)2, 27-57.
- 21) _____(1992). 가정생활정보 인식도와 가정관리행동유형간의 관계. 숙명여대 논문집 33, 325-358.
- 22)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3) 임혜경(1993).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가사노동사회화,그리고 가정관리만족도간의 인과관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24) 오경희(1992). 가정관리유형,생활정보활용수준 및 가족결속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5) 조미환·임정빈(1991).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29(2), 169-184.
- 26) 조영희(199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7) 최동숙(1993). 가정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대 박사학위논문.
- 28) 최선미(1992). 도시 중년기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및 스트레스 상태. 연세대 석사논문.
- 29) 최혜경·노지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 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30) 황경애(1991). 가정관리자의 생활양식유형에 관한 연구. 진주농전대 논문집 29,
- 31) 황현주(1994).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전이. 이대 석사학위논문.
- 32) Beard, D. & Firebaugh F.M.(1978).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ERJ. 6(3), 192-205.
- 33) Broderick, C.B. & Smith, J.(1979)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2). NewYork: The Free Press.
- 34) Buehler, C. & Hogan, M.J.(1986).Planning style in single-parent families. HERJ., 4, 351-362.
- 35) Deacon, R. & Firebaugh F.M(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 36) Hanson, S.L., & Slane D.M(1992). Young children and job satisfaction. JMF. 54, 799-811.
- 37) Lerner, J.V.(1994). Working Women and their families. Sage Pub.
- 38) Meadows, L.M.(1991). Women's Contributions to Family Resources. Calgary Univ.ph.D. 1991.
- 39) Mohamed, A.G., & Nickols S.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ERJ, 12(3), 159-167.
- 40) Newton, D.L.(1979).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Iowa State Univ.ph.D.
- 41) Orden, S.R. & Lucker, E.R.(1969). "Working wives and marital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sislogy, 74, 392-407.
- 42) Rowland, V.T. & Dodder, Nickols(1985). Perceived Adequency of Resource : Development of a Scale. HERJ,14(2).
- 43) Schram, V.R. & Hafstrom, J.L.(1986). Family resources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

- 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Home Economics*, 10, 235-245.
- 44) Sears, H.A. & Galambos N.L.(1992). Women's Work Conditions and Marital Adjustment in two earner couples: A structural model's . *JMF* 54, 789-797
- 45) Thompson, L., & Walker, A.j.,(1991). Gender in familie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46) Titus, P.M.(1988).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ies of money managers ; Base for household net worth and satisfaction,' Iowa State Univ. ph.D.
- 47) Ulbrich, P.M.(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 - income marriages. *JMF* 50, 121-131.
- 48) Vannoy, D.& Philliber W.W.(1992). Wife's Employment and Quality of Marriage. *JMF*. 54, 387-398.
- 49)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 women at work*.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